

재해 지역의 기록화 사례 연구

- 한신·아와지 대지진 기록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

이 미 영*

1. 머리말
2. 한신·아와지 대지진 기록화 사례 연구
 - 1) 재해 이전의 기록 관리
 - 2) 재해 당시의 기록 수집
 - 3) 재해 이후의 기록 관리
3. 기록화의 특징
4. 맺음말

[국문초록]

기록은 지역에 대한 공동기억을 담고 있는 사회적 기억장치로, 공공기록만으론 사회의 모든 모습을 담거나 재현할 수는 없다. 일본은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겪으면서 비록 체계적인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기관간 협력수집의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가능성과 적극적인 기록 생산·수집 노력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수집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 및 분담 노력이다. 특히 공공기관 보다 민간의 활동이 돋보이는데 기관간 협력 노력은 더 많은 사회기억과 역사기록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단초가 되었다.

둘째, 적극적인 관련기록의 생산과 수집이다. 민간단체도 여러 활동의 기록을 스스로 남기기도 하였다.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는 것은 살아남은 이들의 책임이라고 인식했는데, 지진이라는 큰 사건을 겪으면서 스스로의 체험을 기록화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역사의식이 성장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기록의 수집범위에 한계가 없었다는 점이다. ‘한 점이 라도 많은 기록자료를 후세에 전달하자’, ‘일상적인 것들이어서 자료나 기록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당시의 상황을 나타내는 귀중한 「삶의 정보」로 후세에 남길 가치가 있다’라는 몇몇 기관의 구호처럼 재해 지역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던 사람과 장소에 대한 모든 기록은 수집대상이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사회의 무엇을, 어떻게, 왜 다음 세대에 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특정 계층의 뛰어난 의지와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민간영역의 기록화를 모색해야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주제어: 지역 기록관리, 재해 기록관리, 도큐멘테이션 전략, 지역 아카이브

1. 머리말

공공기록으로 모든 사회 모습을 담거나 재현할 수 없다는 데에 우린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많은 이들이 기록물관리법을 만들고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기록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사회가 적절하게 기록되고 미래를 위한 설명책임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노력했지만, 공공기록을 제외한 영역은 그렇지 못했다.

물론 몇몇 기관에서 다양한 역사기록물을 수집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재의 모습을 기록화하려는 시도는 매우 부족하다. 일정 시간이 흐른 후 특정 대상의 기록을 수집하는 것보다, 지금 기록을 생산 수집한다면 우린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음에도 어떤 계기가 없다면 현재의 기록화에 대한 그 필요성과 가치를 깨닫기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한신·아와지 대지진¹⁾」이라는 재해를 겪으면서 일본이 보여주었던 기록 수집·보존 노력은 당대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사건과 관련한 기록의 수집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많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전후로 지진이 발생했던 효고현을 중심으로 지진과

1) 1995년 1월 17일 화요일 오전, 효고현의 아와지 섬 북쪽을 진원으로 발생한 도심직하형 지진이다. 고베시와 "한신 지역"이라고 불리는 니시노미야시(西宮市), 아시야시(芦屋市), 다카라즈카시(宝塚市) 등 효고현 남동부의 인구밀집 지역과 아와지 섬의 일부에서 최대 진도 7도를 기록했으며, 인구 약 150만 명의 고베시에서 피해가 특히 컸다. 1923년 간토 대지진 이후 최대의 인명 피해(사망자수가 6,430여명)를 기록하여, 재산피해가 10조엔(당시 일본 GDP 2.5%에 해당)에 달했다. 지진 직후에 현지에서 이재민 지원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한 사람의 수는 하루 평균 2만명, 3개월간으로 총계 117만명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관련한 기록의 수집·보존 노력을 지역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재해 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했던 한 지역의 기록화 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재난 대비 기록 관리에 관한 연구와는 그 내용을 달리한다.

지역은 성장·발전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한다. 지역은 그 범위가 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하기도 하며 때론 사라지기도 한다. 어떤 지리학자는 사라져가고 변화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지역이 영구적이라는 감성을 강화시키는 의식과 전통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사라져가고 변화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기록임에는 틀림없다. 바꾸어 말하면, 해당 지역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한 기록을 통해서만 지역에 대한 감성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록을 다루는 사람들은 지역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둘러싼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강화시키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록을 수집, 관리, 보존, 서비스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지역은 지리적인 의미도 갖지만, 독립된 객체이기 보다는 그 지역의 일부를 소유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더 넓게는 인간과 환경과의 커뮤니케이션 결과이다. 지역은 단지 물리적 영역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흔적, 역사적 흔적이 남아있는 대상이다. 그리고 지역에 남은 시간은 단지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기억'이다. 지역을 정의하는 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커뮤니티, 역사 발전, 인구, 사회양상, 문화, 지리, 경관, 정치, 종교, 기술 등 매우 다양하다. Richard J. Cox는 지역이 지리적 영역으로서, 문화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역사적 또는 다른 이유들 때문에 각각의 개별적인 정체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²⁾

2) Richard J. Cox, 『Documenting Localities : A Practical Model for American Archivists』

한신·아와지 지진당시의 기록수집과 관리를 살펴보는 것이 재해기록관리가 아닌 지역기록관리의 사례로 적합한지, 그 영향력이 특정 지리적 영역을 뛰어넘은 국가적인 것이기에 온전히 특정 지역 기록관리 사례로 볼 수 있는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진은 당시 지진발생지역에 사회적,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측면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그 지역을 지배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것을 중심으로 당시의 재해 관련 기록관리를 살펴보는 것은 곧 해당 지역 기록관리의 많은 면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Richard J. Cox가 지적했듯이³⁾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같이 특정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기록화 범위를 정할 때 유용한 지리적 기준점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 한정된 기록의 수집·관리 활동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면 지역 기록관리의 좋은 사례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신·아와지 대지진 전후의 일본의 기록수집 및 관리 활동 가운데서도 공적영역보다는 민간영역 측면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특정 지역의 기록화에 대한 방법론적 아이디어를 얻고자 한다. 무엇보다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성과 기록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도큐멘테이션 전략(documentation strategy) 수립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단순한 수집전략만이 아니라 생산전략까지도 의미하는 적극적인 방안으로, 특정 주제나 시기, 지역에 집중하는 기록수집 활동이라는 점에서 지

and Manuscript Curators』, Lanham :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and the Scarecrow Press, 1999, p.9

3) Richard J. Cox는 지역에 대한 지리적 영역 구분이 현재의 기록화 정도(documentation)를 분석하고, 사회를 더 잘 기록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극도로 매력적인 초점이라고 했다. (Richard J. Cox, 『Documenting Localities : A Practical Model for American Archivists and Manuscript Curators』, Lanham :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and the Scarecrow Press, 1999, p.9)

역 기록관리 영역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립공문서관 설립 훨씬 이전부터 지방 공문서관 설립 운동을 펼쳐 온 일본과는 사뭇 다른 우리의 현실에서, 일본의 특수 환경과 기록수집에 대한 자발적 시민 참여 역량을 우리에게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다. 다만 재해지역을 비롯한 특정 지역의 기록화에 관한 연구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 개발에 따라 사라져가는 지역의 기록을 어떻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할 때 참고할 만한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한신·아와지 대지진 기록화 사례 연구

일본도 처음부터 지역 기록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한신·아와지 대지진은 문서의 보존 및 기록관리와 재해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체험을 통해 알려준다. 이 지진 이전의 여러 논의들은 문헌이나 기록, 때로는 개개인의 기억을 통해 구축된 것이었으나 이후로는 경험에 의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평가되고 있다.⁴⁾

1) 재해 이전의 기록 관리

일본은 1959년에 설립된 야마구치현문서관을 시작으로 1987년

4) 小川千代子, 「文書館記録管理における防災対策と災害支援の取り組み」, 『情報管理』, Vol.48 No.6(2005.9), 341쪽

에 공문서관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많은 문서관, 역사자료관, 역사관 등이 설립되었다. 일본에서는 지방문서관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1960년대부터 활발했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봉건영주가 지배하던 시기가 길어 많은 사료가 지방에 남아 있었다. 행정구역 통폐합과 고도성장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농촌사회가 변모하면서 많은 사료가 소멸되어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자료의 보존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라 자연스럽게 지방의 문서관 설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⁵⁾

일본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공공기록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공문서, 고문서를 중심으로 수집·관리·활용을 해나가는 문서관과 문서관·박물관·도서관의 통합적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일본의 역사·미술·공예·예능 등에 관한 도서자료, 행정문서·고문서 등의 문서자료를 총 망라해서 수집·관리하는 역사자료관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⁶⁾ 그러나 문서관이라 이름붙은 많은 기관들도 공문서의 수집·관리업무보다는 과거 역사사료의 수집과 보존에 힘써왔다. 이렇게 축적된 역사사료 수집역량은 1995년 1월 17일 효고현에 발생한 대규모의 지진 이후, 해당 지역에서의 자연스러운 기록수집운동을 촉발시키는 밑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했던 효고현⁷⁾에서는 일본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보편적인 사례와는 다르게, 현청 기획관리부 관리국 소속의 문서과 내에 자료관의 업무가 1985년부터 설치·

5) 김광옥, 「일본 문서관법과 기록보존 현황」, 『역사비평』, 봄호(1997), 129~130쪽
 6) 김종철, 「일본의 지방공문서관과 지방기록관리·문서관과 역사자료관의 설립 과정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1호(2005.4)』, 218쪽
 7) 일본 혼슈(本州) 서부에 있는 현으로, 교토부와 오사카부 서쪽에 접하고 있다. 현청이 소재한 고베시는 원래 요코하마항에 버금가는 대무역항이나,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운영되었다. 자료관에서는 역사자료부문에 관한 업무 즉,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갖는 공문서, 현(縣) 간행물, 효고현사 편집시에 수집한 자료 등의 열람과 소장자료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실 효고현의 방대한 행정조직 속에서 기획관리부 소속의 문서과가 하나의 독립적인 과 정도의 지위와 위상에도 미치지 못한 면을 볼 때, 이를 지방의 기록물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공문서관으로 인정하기에는 그 조직이 너무 약소하다. 더구나 문서과의 보존시설이나 각종 사업을 다른 도도부현(都道府縣)의 문서관과 비교해 보면 조직규모나 활동범위가 지방공문서관과는 동떨어져 있어 지방공문서관의 위상을 갖는 형태라 할 수 없었다.⁸⁾

이렇듯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일어났던 중심지인 효고현의 기록관리상황은 그리 낙관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일본의 전체적인 기록관리 상황에서도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전은 재해가 발생해도, 재해를 공표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하는 것이 문서관이나 관공서의 표준적인 대응법이였다.⁹⁾ 그러나 이때부터 역사학회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기록수집 운동은 해당 지역의 많은 기록을 남김으로써 당시 사회의 기억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무보수로 재해 지역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의 일이다.¹⁰⁾

8) 김종철, 「일본의 지방공문서관과 지방기록관리-문서관과 역사자료관의 설립 과정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1호(2005.4), 246쪽

9) 小川千代子, 文書館,記録管理における防災対策と災害支援の取り組み, 『情報管理』, Vol.48 No.6(2005.9), 341쪽

10) 같은 글 : 341쪽

2) 재해 당시의 기록 수집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방대한 양의 기록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양의 새로운 기록이 생겨난다.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후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행정기관이나 자원봉사 단체의 전달사항을 적은 진단과 선진지¹¹⁾는 피난소 벽에 붙여져 재해민들의 소재정보를 알려 주었다. 재해의 실태, 재해민들의 현 상황과 복구·부흥 과정에 관한 조사연구가 시작되면서 속속 정보서도 만들어지고, 어린이들은 체험작문이나 그림을, 주민들도 일기나 체험기를 발표하였다.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뒤, 재해지역에서의 방대한 기록과 자료가 없어지는 것을 막고, 이를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행정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별도로 존재했었는데, 이 모든 운동을 총칭해서 「진재¹²⁾기록보존운동」이라 한다.

효고현 지역엔 기록관리 조직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의한 기록보존을 중점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었고 효고현에서는 1995년 10월 지진기록수집과 부흥지 편찬을, 외곽단체인 「21세기 효고창조협회¹³⁾(이하, 창조협회)」에 위탁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역사자료네트워크¹⁴⁾는

11) 원문의 표기는 찌라시(チラシ)이다.

12) '진재'는 지진을 의미하는 일본어로, 특정 활동이나 단체명 등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사용될 경우, 그대로 표기하였다.

13) 21세기 효고창조협회의 수집활동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佐々木 和子, 『阪神・淡路大震災を未来につなぐ - 震災資料収集事業の経験から, 『地方史研究』, 第52巻 第5號(2002. 10), 107~117쪽)

14) 오사카 역사학회, 일본역사연구회, 오사카 역사과학협의회, 교토주민과 역사부회, 神戸대학 사학연구회, 神戸女子大 역사학회 등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로, 재해자료구출은 물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다. 간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본래 '한신진재대책역사학회연락회·역사자료보존정보네트워크'

창조협회와 협력관계를 쌓았다.¹⁵⁾ 사료보존에 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지진기록의 보존에 임해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타계하기 위해, 역사자료네트워크와 창조협회는 공동으로 연구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지진자료 수집사업을 시작할 때 효고현으로부터 자료수집을 위탁받았던 창조협회가 가장 처음 부딪힌 문제는 바로 ‘지진자료란 무엇인가’였다. 「기록(레코즈)」이란 시대와 형태를 불문하고 인간이 기록화한 여러 형태의 정보인데 반해, 「사료(史料)」란 기록중에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자료로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즉 사람들의 「기록」중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료」가 되어간다. 즉, 지진자료는 「기록」의 상태에 있는 자료이므로, 「사료」가 될 수 있는 많은 양의, 게다가 다양한 형태의 기록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었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선전지를 작성, 지진자료 수집사업을 시작했다.

서적과 팸플릿뿐만 아니라 개인의 메모류, 체험기, 진단이나 선전지류, 피난소의 벽보, 노트, 마을 집회를 기록한 노트나 메모류 등 통상적으로 일상적인 것들이어서 「자료·기록」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자료·부흥자료·기록」이다. 이것들은 재해를 당한 사람들의 생활이나 당시의 상황을 나타내는 귀중한 「삶의 정보(生の情報)」로써 후세에 남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창조협회는 더욱 구체적으로 문자정보, 영상정보, 음성정보로

라는 명칭에서 1996년에 변경하였다.

15) 寺田匡宏, 復興と 歴史意識 - 阪神・淡路大震災記録保存運動の現在, 『歴史學研究』, 第701號(1997.9), 32쪽

크게 나누었는데 문자정보에는 도서, 신문·공광보(新聞·公廣報), 민간의 전단, 선전지, 벽신문, 사내보, 미니코미지(ミニコミ紙¹⁶⁾), 자원봉사 정보일기, 체험기, 감상문, 메모류, 연구보고, 조사보고, 시책제언(施策提言)이라는 전문연구기록, 세미나, 심포지엄 자료, 각종 통계자료가 포함된다. 영상정보에는 텔레비전 영상, 보도사진, 비디오, 8밀리 필름, 사진, CD-ROM 등의 전자자료가, 음성정보에는 녹음테이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지진에 관한 것들은 형태와 상관없이 수집대상이 되었다. 특히 도서·간행물과 같이 정리된 2차 자료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정리, 편찬되기 전의 메모류, 앙케이트 원표(元票) 등을 포함한 1차자료(原資料), 즉 삶의 소재(生の素材)로서의 자료부터 수집하려고 애썼다. 또한 신문자료도 1995년 1월 1일부터 주요 전국지(아사히, 마이니치, 요미우리, 산케이, 니케이)와 고베신문의 보존이 시작되었다. 단, 효고현을 시작으로 재해 10개 도시, 10개 마을(재해구조법에 적용된 10개의 도시와 10개의 마을을 의미)의 행정문서·행정내부자료의 보존에 대해서는, 문서에 의한 의뢰수준에서 그쳤다.

재해 직후에는 지역에 소재한 조직자체가 엉망이 되어, 통상적인 업무 이외의 문서나, 정식절차를 밟지 못한 문서가 다수 작성되었다. 부흥에 관한 계획은 몇 번이고 고쳐졌으나 보존되어진 것은 위로 제출된 것뿐이었다. 통상 문서보존규정에서는 부흥의 과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행정자료가 폐기될 위험이 많았지만 행정문서 보존의 주체는 각 자치체로, 창조협회의 적극적인 수집대상은 될 수 없었다.

한편, 수집하게 되는 자료는 재해기간 중에 남겨졌거나 배포

16) mini+communication의 일본 조어로, 매스컴에 비해서 극히 적은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전달 수단

되었던 것으로 역사자료로서 남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었다. 어떤 것은 일상적인 것들로써 자료라고 의식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창조협회는 수집활동을 하면서 ‘지진자료란 무엇인가’, ‘지진의 기록이나 자료를 남기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즉 지진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 좋더라도 해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 수집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지진자료에는 주민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비공개 기준 등, 자료의 취급을 명확히 하여 수집주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¹⁷⁾

아마가사키시¹⁸⁾(あまがさき市)에서는 지진의 실태를 정확히 기록하고 후의 방재대책에 도움이 되기 위해 기록집 편찬사업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지진이나 그 재해의 실태, 지진에 대응과 재해민의 생활실태, 부흥계획·사업의 경과 등을 나타내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그 종류에는 자치체(自治体)는 물론 기업, 민간단체, 시민, 각종 연구기관 등의 문서, 기록류, 도서, 보도기록 등이 있었다. 또한 시민들의 요청으로 타시(他市)에서 지원나왔던 직원들의 수기를 모집하거나 구술수집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¹⁹⁾ 아마가사키시 역시도 가능한 폭넓게 수집하려고 하였다. 물론 이런 수집에서도 문제점이 존재했는데 행정과 관계가 없는 민간단체나 시민의 민간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는 점이였다.

17) 佐々木 和子, 阪神・淡路大震災を 未来につなぐ - 震災資料収集事業の経験から, 『地方史研究』, 第52卷 第5號(2002. 10), 109~110쪽

18) 일본 효고현 남동부에 있는 도시

19) 佐々木 和子, 第2回 震災資料の保存と編さんに関する研究会」に参加記 - 震災資料の保存と課題と 方法を探る, 『地方史研究』, 第47卷 第1號(1997.2), 77쪽

효고현 현립도서관은 ‘도서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등의 질문을 해가며 빠른 시일안에 재개관을 목표로 복구작업을 수행하던 중에, 도서관의 큰 역할인 「자료의 수집·보존」에 주목하고 이러한 대지진에 관한 기록을 조금이라도 후세에 전달하려고 하는 의지가 모여져, 「진재기록을 남기는 라이브러리언·네트워크(이하, 라이브·네트)」 활동을 하였다.²⁰⁾

지진관련 자료란 「한신·아와지 대지진」에 관한 전체의 것으로 보았는데, 그 중에서 도서관에 해당하는 것은 대략 다음으로 보았다.

- 출판사에 의한 간행물(도서·잡지)
- 기업·단체의 간행물(사내보·보고서)
- 개인의 간행물(手記·문학 작품집)
- 행정의 간행물(보고·계획서·홍보류)
- 각종 신문류
- 비디오테이프·CD·CD-ROM·녹음테이프 등
- 그 외, 진단·선전지류

이 외에도 개인적인 일기, 노트, 메모, 사진, 테이프 등과 같이 저작권이나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가 있어 도서관에서 취급하기에는 어려우나 중요한 기록자료로써 편집·인쇄·발행을 거치지 않은 「살아있는 자료(生資料)」도 있었다.

재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몇 개의 도서관에서는 「지진에

20) 효고현 현립도서관의 지진관련 자료 수집·보존활동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宮本 博, 阪神·淡路大震災記録資料を 未来に伝える, 『記録と 史料』, No.8(1997.10), 4~10쪽)

관한 자료」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당시는 신문·잡지류가 그 중심이었으나 그 다음으로 전단·선전지류를 포함한 종류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각 도서관의 독자적인 움직임이지 재해지역 도서관계 전체의 움직임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이브·네트」의 활동은 단연 눈에 띈다.

지진이 일어난 후, 가능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에도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대량으로 사라져가고 있으며, 각 기관의 개별적인 수집으로는 제대로 수집되지 못한 자료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지역의 도서관과 자료보존기관의 네트워크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운동의 결과가 「라이브·네트」의 시작인 것이다. 이 후, 모임을 거듭하면서 ‘한 점이라도 많은 기록자료를 후세에 전달하자’, ‘지역의 자료는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이나 자료보존시설에서 수집·보존·공개하는 것이 최적이다’라는 생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²¹⁾

「라이브·네트」는 지진관련자료의 수집·보존과 함께 이것에 대한 필요성, 긴급성을 호소하기 위해 도서관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상황과 계획 등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서관계 잡지에 글을 기고하거나 총회, 모임 등의 장소에서 수집의 필요성을 관계자들에게 호소하였다. 또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간의 공통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지진으로부터 2개월 후 자원봉사단체인 「한신대진재지원 NGO 구원연락회의(阪神 大震災地元 NGO 救援連絡會

21) 宮本 博, 阪神·淡路大震災記録資料を 未来に伝える, 『記録と 史料』, No.8(1997.10), 5~6쪽

議) 안에서 자원봉사의 활동 기록을 남기고자 「진재·활동기록실」이 만들어졌으며, 5월에는 고베대학 부속도서관이 지진 관련서 뿐만 아니라 진단과 선진지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부탁하였다.²²⁾

미야모토 히로시(宮本 博)는 지진관련 자료 수집의 발자취를 4단계로 나누었는데, 1995년 1월에서 3월, 혼란스러운 재해상황임에도 빠른 시일에 지진의 기록과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였던 시기를 “맹아기(萌芽期)”로, 1995년 5월에서 7월, 각 기관에서 자료수집의 움직임이 활발해 지면서, 자료의 폐기가 급속히 되는 가운데 각 기관의 대책마련이 이루어진 시기를 “긴박기(緊迫期)”로 보았다. 또한 1996년 2월부터 각종 연구회나 모임이 활발하게 개최되었던 시기를 “검토·모색기”로, 같은 해 8월은 국토청이 예산요구를 하는 등 국가의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각 기관에서의 수집과 보존의 움직임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안정기”로 보았다.²³⁾

이 시기구분에도 알 수 있듯이 지진이라는 사건을 겪으면서 지역에서의 수집활동을 국가가 주도하기 이전에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나 자료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던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진기록보존운동은 재해지역의 역사의식 및 체험과 밀접한 관계를 지님을 보여주었다. 시민들은 <활자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기억의 영역으로서 남아있는 <마음의 역사>에도 직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망한 기억, 파괴된 집의 기억, 그

22) 佐々木 和子, 阪神・淡路大震災を 未来につなぐ - 震災資料収集事業の経験から, 『地方史研究』, 第52卷 第5號(2002. 10), 107쪽

23) 宮本 博, 阪神・淡路大震災記録資料を 未来に伝える, 『記録と 史料』, No.8(1997.10), 9쪽

리고 1월 17일에 뒤바뀐 마을의 기억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마을(まち)의 기억을 중요시해서 마을을 재정비하려는 생각도 생겨났다. 이것은 지진이 부른 과거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었다. 하지만 지진이 흔들여 놓은 역사의식은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인식, 즉 그것이 미래의 역사가 될 사건이라는 인식이 지진발생 직후부터 광범위하게 존재했다.²⁴⁾

3) 재해 이후의 기록 관리

재해가 일어난 지 몇 년이 지나면 눈에 보일 정도로 시설은 회복되고, 사람들의 생활에서도 조금씩 재해의 기억이 사라져 간다.

테라다 마사히로(寺田匡宏)는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후대에 승계하려는 운동을 3가지 분야로 나누었다.²⁵⁾ 첫 번째는 지진의 체험을 기록화하려고 하는 「체험 기록」운동으로, 지진을 체험한 많은 시민들은 그 체험을 기록했다. 「한신대지진을 계속 해서 기록하는 모임(阪神淡路大を記録し續ける會)」은 널리 사회 일반을 불러 모아 지진 체험의 기록을 수집, 이것을 출판하는 활동을 이어나갔다. 또한 재해지의 「기억의 연작」을 주제로 영상작품을 찍어가는 그룹도 있었다. 글이든 영상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현재를 포함한 지진을 기록화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다.

24) 寺田匡宏, 復興と 歴史意識 - 阪神・淡路大震災記録保存運動の現在, 『歴史學研究』, 第701號(1997.9), 33쪽

25) 寺田匡宏, 復興と 歴史意識 - 阪神・淡路大震災記録保存運動の現在, 『歴史學研究』, 第701號(1997.9), 35~36쪽

두 번째는 지진의 흔적(지진유적)을 보존하려는 움직임이다. 예를 들어 효고현과 북아와지 지역의 진원지이기도 한 아와지 시마를 「진재기념공원」으로 정비했으며, 고베시 나카타쿠는 화재로부터 남은 방화벽이 「고베의 벽」으로 불려 해외의 예술가들도 참가한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시민영역과 행정영역 양쪽 모두가 재해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후세에 전달하는 「진재유산」의 보존이 진행되었다.

세 번째는 지진기록의 보존운동이다. 앞의 두 가지가 개개의 측면에서 기록하고 계승하려는 운동이었다면, 이것은 지진의 기록이나 자료를 포괄적으로 보존하려는 운동이었다. 「라이브·네트」의 활동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해 온 일을 기록으로 남기는 자원봉사자 모임(やったことを記録に残すボランティア大集會)」, 고베대학부속도서관의 「진재문고」 설치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것이 ‘체험, 흔적, 기록’으로 재해 이후의 보존움직임을 구분한 것이라면 수집, 분류, 공개, 전시 등 기록관리 영역을 기준으로 재해 당시의 활발했던 수집·보존운동이 이후에 어떻게 이어졌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 자료조사와 수집

1998년 4월, 창조협회가 수행해왔던 지진자료 수집사업은 1997년 12월에 설립된 「한신·아와지 대진재기념협회(阪神·淡路大震災 記念協會)」로 옮겨졌다. 이에 따라 효고현만의 사업이 고베시를 시작으로 지진이 발생했던 각 시와 마을도 포함하는 단체사업이 되었다. 이러한 수집활동은 전단, 선전지, 메모류까지 포함한 1차자료부터의 수집이 기본이 되었다. 「한신·아와지

대진재기념협회(阪神・淡路大震災 記念協會)가 이 조사계획을 담당하고 조사와 함께 수집한 자료의 정리·보존을 지도하였다. 더군다나 지금까지의 조사경험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작성하였으며, 조사의 주체로서 망라적으로 효고현내 재해지역 지진자료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²⁶⁾

다행히도 효고현에서는 지진발생 후 5년 지난, 2000년 6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약 2년간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의 「긴급지역고용창출특별교부금사업」을 통해 지진자료 조사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진자료 조사·수집의 성과는 2002년 4월에 개관한 「한신·아와지 대진재기념·사람과 방재미래센터(阪神・淡路大震災記念・人と防災未来センター)」로 옮겨졌다. 홈페이지²⁷⁾에서는 다음과 같은 홍보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각지의 자원봉사센터 및 사료 소장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 물이나 진흙에서 본 더럽거나 언뜻 보면 쓰레기같은 것뿐만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것도 역사 자료일 수 있습니다. 버리기 전에 문의하십시오.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역사자료네트워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역사자료는 무엇일까요? "장래에 그런 오래된, 귀중한 물건은 없습니다." 즉시 처리하지 마십시오. 다음과 같은 것들도 귀중한 역사자료입니다. 국가와 현이나 시정촌(市町村)이 지정한 문화재만이 역사자료는 아닙니다.
 - 고문서 (변형된 문자로 전통 화지에 쓴 것들)

26) 佐々木 和子, 阪神・淡路大震災を 未来につなぐ - 震災資料収集事業の経験から, 『地方史研究』, 第52卷 第5號(2002. 10), 111쪽

27) 歴史資料ネットワーク ホームページ. (<http://www.lit.kobe-u.ac.jp/~macchan/>)

- 오래된 책 (전통 화지에 쓰여지고 책자로 있는 것 등)
- 메이지·다이쇼·쇼와(明治·大正·昭和)시대의 오래된 책, 노트, 기록 (편지와 일기 등), 신문, 사진, 그림
- 낡은 맹장지나 병풍 (고문서가 아래 붙어 사용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 학생회 등의 단체 기록과 자료
- 농기구나 도구, 오래된 기모노 등 물건을 만들거나 생활을 위한 도구

재해가 발생하면 그것을 계기로 역사자료가 대량으로 폐기됩니다. 지역 및 가정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유일하고 귀중한 지역 역사자료의 보존 활동에 참여합니다.

역사자료네트워크(歴史資料ネットワーク)는 지금도 지진자료의 수집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수집활동은 물론, 「한신·아와지 대지진 후 보존(保全) 역사자료의 보존과 활용, 한신·아와지 대지진 문서 기록의 보존과 활용,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의 역사 연구 활동 지원, 대규모 자연 재해에 대한 사료 보존 역사 연구에 대한 제언, 대규모 자연 재해시 역사학회 사료보존 활동의 잠정적인 센터 역할, 시민 사회 속에서 역사 자료의 형태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한다. 이 모든 것이 1995년에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역사자료네트워크」의 활동 영역이다.

□ 자료의 정리, 분류

종래에 지진기록을 어떻게 분류해야 좋을지에 대해 각 기관에서 통일되어 있지 못했다. 고베대학 부속도서관에서는 일본 십진분류표를 기준으로 도서를 포함한 「진재문고」 분류표를

작성, 분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자료론 입장에서는 「출처주의 원칙²⁸⁾」, 「원질서존중의 원칙(原秩序尊重の原則)」에 의해, 자료의 군(群)으로서의 존재형태를 중시해, 각각의 자료를 그 전체안에서 위치 매기고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이 주를 이루었다. 1차자료는 자료군으로부터 분리하여 1건씩 취급해서 자료는 출처별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출처에 대한 정보나 자료작성의 경위, 자료군 전체의 정보 수집에도 힘썼다.²⁹⁾

조사처의 자료군 단위로 자료가 정리되면, 이러한 정리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조사처 테이블, 건명 목록 테이블의 항목 설정은 ISAD(G)에 준하여 진행되었다. 정보항목은 자료군에 대한 정보와 조사처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건명 목록 테이블은 건단위의 검색이 가능하고, 자료군 전체나 조사처에 관한 정보를 얻어 전체 중에서 위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³⁰⁾

사실 정리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한 점으로 볼 것인가, 어떻게 자료명을 붙일 것인가, 형태의 분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매뉴얼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다.

2000년도 후반, 교부금 사업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축적과 함께 「사람과 방재 미래 센터(阪神・淡路大震災記念 人と防災未来センター)」 개관시 자료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 졌다. (주)와세다(早稲田)시스템 개발에 따른 「IB 뮤지엄」이

28) 원문에서는 「출소원칙(出所原則)」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9) 佐々木 和子, 阪神・淡路大震災を 未来につなぐ - 震災資料収集事業の経験から, 『地方史研究』, 第52巻 第5號(2002. 10), 110~111쪽

30) 佐々木 和子, 阪神・淡路大震災を 未来につなぐ - 震災資料収集事業の経験から, 『地方史研究』, 第52巻 第5號(2002. 10), 113~114쪽

라는 박물관용 소프트웨어를 지진자료의 특성에 맞게 만들고, 「진재자료검색 데이터베이스」의 개발도 이루어졌다.³¹⁾

□ 자료 공개

1998년 6월, 「진재자료의 분류·공개 기준연구회」가 발족되어 1차자료의 분류와 공개기준 작성 등의 사업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한신·아와지 대진재기념협회(阪神・淡路大震災 記念協會)」는 2001년 10월부터는 작업 데이터의 정리에 주안을 두고 사진과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체크해서, 후에 자료 공개·열람의 1차 선별기준으로 삼았다.

공개기준은 공개연구회의 부회(部會)를 설치하여 검토하였는데, 자료는 공개가 원칙이며 지진자료에서 진단과 선단지 등 공개된 것들과 공개가능한 것들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공개하고 비공개 자료에 대해서는 목록을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기준이 협의되었다.

공개작업을 진행하면서 몇 개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진자료는 자료의 제공자와 작성자가 동일인물이 아닌 경우가 많아 제공자의 공개의향은 확인하였으나 자료작성자는 자료가 제공되었다는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작성자를 충분히 배려하면서 공개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약 10만장에 가까운 사진데이터를 수집하였으나 이러한 10만장의 사진을 찍은 개인의 초상권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사진에 찍힌 개인명, 상점명 등 개인정보는 어느 범위까지 공개가 가능한 것인가 등, 어느 것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다.³²⁾

31) 같은 글, 113쪽

32) 같은 글, 114쪽

□ 전시

고베시는 대지진 발생으로 파괴된 고베항 인근의 방파제와 가로등, 시설물 등을 당시의 상황 그대로 보존하고 그곳에 홍보관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지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 위령탑도 마련해 고베지진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기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는 같은 재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³³⁾

다양한 지진기록 수집의 성과를 이어 받아,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경험을 되살리고, 그 교훈을 미래사회에 적용하기 위해 「한신·아와지 대진재기념·사람과 방재미래센터(阪神・淡路大震災記念・人と防災未来センター)³⁴⁾」가 설립되었다. 이 센터에서는 지진재해 체험 공간, 지진재해 기억 공간, 방재·감재 체험 공간 등 방재 미래관과 인간 미래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고베항에 위치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그대로 보존해 놓은 「대지진 메모리얼 파크(神戸港 震災 メモリアルパーク, Kobe earthquake Memorial Park)」는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과거를 기억을 잊지 않고자 하는 의도이기도 하다.

3. 기록화의 특징

한신·아와지 대지진은 사회, 지리적으로도 큰 사건이지만 일본의 기록관리 측면에서도 큰 사건으로 이 사건이후 큰 재해가

33) <http://www.gy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90>

34) 한신·아와지 대진재기념·사람과 방재미래센터(阪神・淡路大震災記念・人と防災未来センター) 홈페이지. <http://www.dri.ne.jp>

발생할 때마다 기록을 수집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생겨났다.

<표 1> 한신·아와지 대지진이후의 재해와 대응조직³⁵⁾

년대	재해 명	설치된 재해대응 조직(약칭)	연락선 등
1995	한신·아와지 대진재	역사자료보존정보 네트워크 →역사자료 네트워크(사료네트)	神戸大學 (고베대학)
2000	돗토리현 서부지진	돗토리현 서부지진(山陰서부지진) 재해사료구출네트워크 →山陰역사자료네트워크 (山陰사료네트)	島根大學 (돗토리 대학)
2001	케이코지진	케이코지진재해 자료구출네트워크지원 (에히메 자료네트)	에히메대학 법문학부
2003	미야기 북부 연속 지진	미야기 역사자료보존 네트워크 (미야기 네트)	동북대학동북아시아 연구 센터
2004	후쿠이 폭우	후쿠이 사료네트워크	福井大學 (후쿠이 대학)
2004	니가타 중부 지진	니가타 역사자료구출네트워크	니카타대학 인문학부
		히로시마 사료네트워크 (히로시마 사료네트)	히로시마대학대학원 문학연구과 일본사연구실
		자료네트 야마구치	야마구치대학 교육학부

한신·아와지 대지진 발생시의 다양한 기록의 수집·보존운동을 살펴보면, 몇 가지 눈여겨 볼 점들이 있다.

첫째 수집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 및 분담 노력이다. 특히 공공기관 보다 민간의 활동이 돋보인다. 지진이 발생했던 효고현

35) 小川千代子, 文書館,記録管理における防災対策と災害支援の取り組み, 『情報管理』, Vol.48 No.6(2005.9), 344쪽

은 기록관리의 취약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지진 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위탁하였다. 기관의 지위에 따라 수집의 역할을 옮겨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인이든 기관이든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파악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료수집의 분담과 협력이 이루어졌다. 이 점은 기록수집을 위한 많은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날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일 듯하다. 「라이브·네트」를 통한 기관간 협력 노력은 더 많은 사회기억과 역사기록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단초가 되었다.

둘째, 적극적인 관련기록의 생산과 수집이다. 먼저 민간단체의 경우 여러 활동을 스스로 남기기도 하였다. 그 예로 고베시의 자원봉사단체인 「진재·활동기록실」은 1995년 3월, 지진 후의 재해지에서 여러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의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수집한 자원봉사자의 자료와 도서를 공개하고 「기록실총서」를 발행하여 기록을 남기고자 하였다.³⁶⁾ 많은 양의 기록 수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판물 발행도 이뤄졌다. 그 가운데 체험을 기록화한 비중도 높았는데, 효고현립 아시아고교의 기록집 후기에는 ‘지진후의 아시아고교생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는 것은 살아남은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적혀 있다. 큰 사건을 겪으면서 스스로의 체험을 기록화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또한 기록보고서를 작성하면서는 카메라를 누를 수 없는 비참한 상황임에도 「후세에 남길 지진 직후의 기록을 작성한다는 큰 목표를 향해 조사를 진행하였다³⁷⁾」고 한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앞서 확인했듯이 효고현

36) 寺田匡宏, 復興と 歴史意識 - 阪神・淡路大震災記録保存運動の現在, 『歴史學研究』, 第701號(1997.9), 38쪽
 37) 寺田匡宏, 復興と 歴史意識 - 阪神・淡路大震災記録保存運動の現在, 『歴史學研究』, 第701號(1997.9), 34~35쪽

지역에 기록관리기관이 충분히 기능을 하지 못했던 현실에 대한 일부 반영일 수도 있으나 재해를 경험하면서 역사의식이 성장했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각 기관 역시 본래 성격을 뛰어넘는 적극적 수집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경우 종래에는 그 대상으로 하지 않는 전단이나 선전지 등도 수집범위에 넣으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셋째, 기록의 수집범위에 한계가 없었다는 점이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역 기록을 어디까지 생산, 수집할 것인지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지역사료의 경우, 가능한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수집하는 것이 좋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버리는 것은 언제라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³⁸⁾"라고 망라적인 수집이 권장되기도 한다. 한신·아와지 대지진은 이런 망라적 수집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라이브·네트」가 ‘한 점이라도 많은 기록자료를 후세에 전달하자’를 기본 이념으로 가졌던 것처럼, 「창조협회」가 ‘일상적인 것들이어서 자료나 기록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당시의 상황을 나타내는 귀중한 「삶의 정보」로 후세에 남길 가치가 있다.’는 내용을 수집홍보물에 담았던 것처럼, 수집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재해 지역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던 사람과 장소에 대한 모든 기록이 수집되었다.

1996년 10월에 열렸던, 「제2회 진재자료의 보존과 편찬에 관한 연구회」에 참석했던 고베대학의 이와자키(岩崎信彦)는 기록학이 아닌 사회학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 조사항목을 열거하였다.³⁹⁾ 제1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갔는

38) 안도 마사히토 지음, 이애란 옮김, 『지역문서관리』, 서울 : 아세아문화사, 2000, 113쪽 (원서명 : 草の 根の 思相)

가 하는 것으로, 주택피해, 화재상황, 사망자에 대한 행정이나 건축학회 등의 조사자료이다. 제2는 피난, 구조 등이 어떻게 있었는가하는 것으로 주민의 일기, 자원봉사자들이나 피난소의 기록물 등이 있다. 제3은 가설주택가(假設住宅街)의 사람들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제4는 주택이나 생활의 재건, 부흥의 마을 재정비에 대한 조사이며, 제5는 역사적인 자료로서 지진 직후의 사진, 비디오, 인터뷰 조사이다.

그의 주장은 곧 지진 발생이후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사람에 관한 자료를 모두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과도 같다. 이 주장도 역시 수집범위는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충분히 설계되어 있지 않을 경우, 특정 사건 또는 지역에 대한 망라적 수집은 어쩌면 최선의 수집전략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기록화과정에 항상 좋은 측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여러 분야의 연구자가 재해지역에 들어갔으나, 연구팀이 난립함으로써 조사공해라는 현상이 나타났고 앞의 이와자키 또한 의미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네트워크와 루트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듯이 자료의 공유도 보이지 않았다.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스스로가 인식한 문제점의 대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적극성이 결국 당대 사회의 면면을 살펴보고 이해하는데 든든한 뒷받침을 만들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39) 佐々木和子, 第2回 震災資料の保存と編さんに関する研究会」に参加記 - 震災資料の保存と課題と方法を探る, 『地方史研究』 第47巻 第1號(1997.2), 77쪽

4. 맺음말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전후로 해당 지역에서의 기록수집·관리 활동을 살펴보았는데, 지역에 기반을 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수집범위에 한계를 두지 않은 적극적인 노력이 눈에 띄었다. 결국 지역 기록화는 사회의 기록화였다.

Richard J. Cox는 ‘지역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인간 활동의 15가지 주제, 즉 「농업/예술과 건축 / 사업, 산업 그리고 제조업 / 교육 / 환경문제와 천연자원 / 노동 / 의학과 건강관리 / 군대 / 정치, 정부, 법 / 인구 / 레크레이션과 레저 / 종교 / 과학과 기술 / 사회조직과 활동 / 운송 및 커뮤니케이션」를 기록화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⁴⁰⁾ 이런 주제 구분은 매우 망라적인 것으로, 일반적인 지역기록관리의 범주를 정할 경우에는 참고가 되겠지만, 일본의 사례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기록화 사례는 체계적인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기관 간 협력수집의 가능성과 적극적인 기록생산 및 수집이라는 측면에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코베 후카에 생활문화사료관(神戸深江 生活文化史料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코베의 후카에지구 사람들이 에도시대 이래, 지역의 기록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설립한 독특한 사료관이다.⁴¹⁾ 한

40) Richard J. Cox, *Documenting Localities : A Practical Model for American Archivists and Manuscript Curators*, Lanham :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and The Scarecrow Press, 1999

41) 안도 마사히토 지음, 이애란 옮김, 『지역문서관리』, 서울 : 아세아문화사,

신·아와지 대지진 사례도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재해상황임에도 기록의 수집·보존주체가 꼭 기록관, 도서관, 또는 공공기관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록화’가 결국 지역 기록화를 풍성하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의 일본의 기록수집 및 관리활동을 보면서, 사회의 무엇을, 어떻게, 왜, 다음 세대에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 특정 계층을 뛰어넘은 의지와 열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회 등을 개최하여 재해자료가 무엇인지를 공유하고, 자료수집의 어려움이나 과거의 재해사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를 같이 고민했다는 점도 배울 만하다.

이러한 생각과 노력의 결과로써 지진의 기억은 사라져도 기록을 통해 그 당시의 지역과 역사는 남게 되고 결국 사람들의 경험과 흔적이 계승될 수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개인의 경험을 개인의 것으로만 한정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활동들이, 사회적 공유로, 세대를 잇는 경험으로 그 차원이 높아진 것이다.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기록이 넘어왔던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人と防災未来センター)의 2006년도 1월 소장 자료량을 살펴보면, 1차 자료(종이, 영상, 음성, 사진 등)가 165,810건, 2차 자료(도서, 잡지, 선전지, 영상, 기타)가 29,388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양이다.⁴²⁾ 「원폭돛이 인류의 장래 유산으로서 보존되어 있는 것처럼, 지진자료도 단순한 과거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이라는 관점을 적극적으로 가져야한다⁴³⁾」는 그들의 생각은 일부

2000, 47쪽(원서명 : 草の根の思相)

42) 佐々木 和子, 『アーカイブズが生まれる-災害とひとが出会うとき, 『アーカイブズ学研究』, No.4(2006.3), 29쪽

43) 佐々木 和子, 『第2回 震災資料の保存と編さんに関する研究会』に参加記 -

실천되었다.

장소, 그 자체는 과거의 경험과 사건의 현재적 표현이자, 미래에 대한 희망의 현재적 표현이다.⁴⁴⁾ 그러나, 한 장소에서 여러 해를 지내더라도 우리가 회상할 수 있거나 회상하고 싶은 기억의 흔적은 거의 남지 않을 수도 있다.⁴⁵⁾ 따라서 기록은 장소(지역)에 대한 공동기억을 담고 있는 사회적 기억장치가 된다.

안도 마사히토의 지적처럼 「기억장치가 없는 지역사회는 걸 보기에 변명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인간미 넘치는 운택한 미래를 만들 수 없음⁴⁶⁾」은 분명하다. 일본은 대지진을 경험하면서 기록하고,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재해복구가 그 지역의 사회 인프라 복구에서 그치지 않고, 기록을 통한 사회 기억에 대한 복구를 꾀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험은 사회전반의 기록생산과 수집, 관리 역량이 커나가는 데 좋은 밑바탕이 됐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Richard J. Cox(1999)는 지역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관해 쓴 그의 책 『Documenting Localities』에서, 당시의 미국 아키비스트들이 「보존소가 보존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 대신에 아키비스트가 어떻게 사회를 기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⁴⁷⁾ 그 질

震災資料の保存と課題と 方法を探る, 『地方史研究』, 第47巻 第1號 (1997.2), 78쪽

44) 에드워드 펠프 지음,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 논형, 2005, 85쪽

45) 이-푸 투안 지음, 구동화·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서울 : 도서출판 대운, 2007, 295쪽

46) 안도 마사히토 지음, 이에란 옮김, 『지역문서관리』, 서울 : 아세아문화사, 2000, 28쪽(원서명 : 草の根の思相)

47) Richard J. Cox, Documenting Localities : A Practical Model for American Archivists

문에 대한 대답이 행동으로 이어졌다면,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기록학 언저리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이 사례연구는 재해를 경험했을 때 국가적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특정 지역을 기록화하고자 했던 노력을 살펴 본 것이다. 이제 이 분야 연구의 문을 연 것으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공공기록으로 모든 사회가 기록될 수 없다는 진리를 전제했을 때, 본 연구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의 기록화를 위해 어떤 것이 도큐멘테이션되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며, 무엇을 근거로 누가 수행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있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and Manuscript Curators』, Lanham :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and The Scarecrow Press, 1999, p.95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Documentation in a Disaster Area - On the Basis of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

Lee, Mi-young

Records are the social memory storage including collective memory about region, it is impossible to put into and represent all aspects of society with only public records. Japan showed the possibilities of cooperative collecting and the positive records producing and collecting efforts between organizations, even if it was not accomplished by systemic documentation strategy.

Some characteristics were found out when this case was reviewed, it is as follows. To begin with, it is the cooperation and share in collecting. Especially, the activities of private organizations look better than public organizations and the cooperative collecting efforts lead to transmit much more social memory and historical records to next generation.

Secondly, it is the positive records producing and collecting. The private organizations also left many records of various activities of those one accord. They recognized that recording experience and leaving behind is the survivors' responsibility. We cannot help recognizing the growth of a sense of duty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to record their own experience with undergoing big disaster, earthquake.

Thirdly, there was no limit when it comes to the collecting scope. All

records related with people and place in disaster area were the target for collecting just like slogan, 'Let's transmit records to next generation as much as possible', 'Common records and resources deserve leaving, because it is important life's information proving situations of the time.

We were able to confirm the high will and enthusiasm about 'how, what and why do we transmit something of society to next generation' in this case.

Key words: local records management, disaster records management, documentation strategy, local archives